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 유능성과 따뜻함의 차원에서의 분석*

김혜숙[†] 고재홍 안미영 · 안상수 이선이 최인철

아주대 심리학과 경남대 심리학과 아주대 사회과학연구소 아주대 사회학과 서울대 심리학과

우리 나라 주요 집단(지역 집단, 성 집단, 신체장애인, 탈북자 등)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을 유능성과 따뜻함의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4개 지역의 학생과 일반인 그리고 신체장애인, 탈북자 및 이혼녀 집단 등 총 1530명이 설문 조사에 응답하였다. 그 결과 예상대로, 응답자들은 지위가 높고 경쟁적인 집단들에 대해서는 유능하지만 따뜻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질투의 감정을 나타낸 반면, 지위가 낮고 덜 경쟁적인 집단에 대해서는 덜 유능하지만 더 따뜻하다고 평가하였고 연민의 감정을 나타내었다. 내외집단 평가의 차이는 유능성 차원에서는 탈북자, 신체장애인, 이혼녀 및 여성 등의 경우에 내집단 평가가 외집단 평가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따뜻함 차원에서는 탈북자, 호남인, 이혼녀 등이 가장 큰 내외집단 평가 차이를 보였다. 학생들은 일반인보다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에 대해 더욱 고정관념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의 이론적·실제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다수 집단, 소수 집단, 고정관념 내용, 유능성, 따뜻함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한 기존의 사회인지 연구 분야는 기본적으로 과정지향적(process-oriented) 접근을 취하고 있다 (Fiske & Taylor, 1991; Taylor, 1998). 이러한 과정지향적 접근은 고정관념의 내용은 대상 집단에 따라 그리고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그 작용 과정은 대상 집단에 상관없이 동일한 원리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은 Katz와 Braly (1933)가 고정관념 연구 분야를 처음 시도할 때 고정관념의 과정에 대한 분석보다는 (인종) 고정관념의 내용을 밝히고자 하였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들은 사람들에

게 84개의 형용사들을 제시하고 10개국 사람들의 전형적 특성을 나타내는 항목들을 지적해 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고정관념의 내용에 대한 관심은 성 집단(김혜숙, 1992; Broverman, Vogel, Clarkson, Rosenkrantz & Vogel, 1972)이나 인종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지역 고정관념(김진국, 1987; 김혜숙, 1988)의 내용 등에 대한 연구들로 이어 졌다. 이러한 고정관념의 내용에 관한 관심은 그러나 1980년대 들어 고정관념의 과정에 대한 관심이 사회인지 연구자들에 의해 강조됨으로써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Fiske & Taylor,

* 이 논문은 2002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연구 지원(KRF-2002-074-HS1508)에 의해 연구되었음.

† 이 논문의 자료 수집을 도와 주신 전남대 오수성교수님, 김명혜 교수님과 충북대 이승복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교신처: 김혜숙(442-74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산5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hsk@ajou.ac.kr)

1991).

그러나 최근 들어 Fiske, Cuddy, Glick과 Xu (2002)는 고정관념의 내용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 일으켰는데, 그들은 고정관념의 내용도 일정한 원리에 따라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어떠한 대상 집단에 대해 어떠한 고정관념이 형성될 지에 대한 예언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집단 고정관념의 내용이 그 지위와 (내집단과의) 경쟁여부에 따라 각각 유능성과 따뜻함의 차원에서 변화된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또한 그들은 어느 사회의 다수와 소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은 많은 경우 일방적으로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 특성과 부정적 특성이 혼재해서 이루어지는 혼합형 고정관념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지위가 높은 다수 집단(예를 들어, 부유층)에 대해서는 유능하지만 덜 따뜻하다고 지각하고, 반면 지위가 낮은 소수 집단(예를 들어, 영세민)은 덜 유능하지만 더욱 따뜻하다는 고정관념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위도 높고 자신의 집단에 경쟁적이지도 않은 집단(예를 들어, 다수의 내집단)에 대해서는 유능하면서 동시에 따뜻하다는 고정관념이, 그리고 지위도 낮고 내집단에 대해 경쟁적인 집단(예를 들어, 집없는 사람, 복지수혜자)에 대해서는 유능성과 따뜻함 모두 낮게 지각하였다.

Fiske 등(2002)이 집단 고정관념의 두 차원으로 사용한 유능성과 따뜻함의 특성은 실상 대인 지각에 있어 주요한 특성으로 간주되어 왔다 (Rosenberg, Nelson & Vivekananthan, 1968). 즉, 대인 평가나 인상 형성에 있어 지적 특성(즉, 영리하다, 탐구적이다 등)과 사회적 특성(즉, 친절하다, 따뜻하다, 사교적이다 등)이 주요한 두 평가 차원으로 간주되어 왔다. 우리 나라에서도 조공호(1982)가 이러한 두 차원의 특성을 구분하여 각각이 대인 평가에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두 차원의 특성 차원은 대인 지각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집단 지각에 있어서도 중요해 질 수 있으며, 집단의 지위와 같이 집단이 가지는 힘이나 권력의 측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적 활동이나 특성을 지각하도록 하고, 한편 내집단과의 경쟁 여부 등의 집단 측면은 보다 사회적이거나 성격적인 특성을 지각하도록 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실상 일상생활의 예에서도, 우리는 소위 ‘능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냉정하고 이기적인’

집단들(예컨대 서울사람)과 ‘그다지 유능하지 않지만 푸근하고 따뜻한’ 집단들(예컨대, 지방사람들)로 구분하여 집단들을 지각하기도 한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여성 집단의 하위 집단으로 ‘능력있으나 이기적인’ 여성 하위 집단들(예컨대, 페미니스트 운동 집단)과 ‘무능하지만 따뜻한’ 여성 하위 집단(예를 들어, 가정주부 등)으로 구분하여 지각하기도 한다.

Fiske 등(2002)은 또한 사람들은 이러한 집단들에 대해 각각 다른 감정을 가지게 된다고 보았는데, 지위가 높고 경쟁이 높은 집단 사람들에 대해서는 질투(envy)의 감정이, 지위가 높지만 경쟁적이지 않은 집단에 대해서는 감탄과 찬미(admiration)의 감정이, 지위가 낮고 경쟁적인 집단에 대해서는 경멸과 분노(contempt)의 감정이 그리고 지위가 낮고 경쟁적이지 않은 집단 사람들에 대해서는 연민(pity)의 감정이 발전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집단 지위와 내집단과의 경쟁 여부에 따라 사람들이 집단들에 대해 발전시키는 고정관념, 감정 및 편견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이다. 즉, 사람들은 지위가 높고 경쟁적인 집단에 대해서는 질투적 편견, 지위가 높고 경쟁적이지 않은 집단에 대해서는 찬미적 편견, 지위가 낮고 경쟁적인 집단에 대해서는 경멸적 편견, 그리고 지위가 낮고 경쟁이 낮은 집단에 대해서는 보호적 편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집단의 사회구조적 측면(즉, 지위나 경쟁)이 고정관념의 내용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면 어떠한 집단이든지 그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을 예언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어느 사회에서건 고정관념의 내용이 대상 집단에 따라 일관성있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구조의 측면들에 따라 체계적으로 변화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이전 연구들과 달리 고정관념의 내용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일정한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Fiske 등(2002)의 분석 체계를 적용해, 우리 사회의 여러 주요 다수 집단(즉, 지위가 높은 집단)과 소수 집단(즉, 지위가 낮은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을 유능성과 따뜻함 차원에서 비교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지위가 높고, 낮은 집단들 그리고 경쟁적이며 공격적인 정도에 따라 변화되는 집단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유능성과 따뜻함의 두 차원에서 비교 검토함으로

써, 우리 사회의 주요 집단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이전의 연구들에서 특정 집단(예를 들어, 지역 혹은 성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 내용을 따로따로 검토하였던 데 반해, 우리 사회의 중요 집단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동일 차원상에서 비교 검토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사람들이 신체장애인, 영세민 등의 소수 집단(여기서는 사회적 권력이 적은 집단의 의미로 사용하였다)에 대해 유능하지 못하지만 따뜻하다고 지각하고 연민을 느끼는(즉, 보호적 편견) 한편 부유층이나 서울 사람 등의 다수 집단(즉, 사회적 권력이 큰 집단)에 대해서는 유능하지만 냉정한 특성을 가진다는 고정관념(즉, 질투적 편견)을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위가 높고 경쟁적이지 않은 집단(예를 들어, 인권운동가)에 대해서는 찬미적 고정관념(즉, 유능하고 따뜻하다고 지각함, 감탄을 느낌) 그리고 지위가 낮고 경쟁적인 집단(예컨대, 이혼녀, 전과자)에 대해서는 경멸적 편견(즉, 유능하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다고 지각함, 경멸과 분노를 느낌)을 가지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유능성과 따뜻함의 차원에서 우리나라 여러 주요 집단들을 포괄적으로 비교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한편, Fiske 등(2002)의 집단 고정관념 분석 체계는 주로 외집단에 대한 평가에 적용되지만, 내집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부유층이나 서울 사람들과 같은 다수 집단 사람들은 스스로를 능력도 있고 또한 따뜻하다고 지각할 가능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탈북자나 신체장애인 등의 소수 집단 사람들은 스스로를 보다 유능하다고 지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외집단 지각의 괴리는 집단 갈등의 주요 근원이 될 수 있다. 즉, 소수 집단은 자신들의 능력이 다른 집단 사람들에게 의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느껴 불만을 가질 것이고, 반면 다수 집단 사람들은 자신들이 실제 이상으로 냉정하고 이기적으로 지각되고 있다고 역올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들이 유능성과 따뜻함에 있어 내집단에 의해 평가되는 바와 외집단에 의한 평가가 괴리가 있는 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수 집단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외집단 사람들이 평가할 때

보다 더 따뜻하다고 평가할 것이며, 반면 소수 집단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외집단 사람들의 평가보다 더 유능하다고 평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우리나라의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들 중 내집단 평가와 외집단 평가의 괴리가 큰 집단이 어느 집단들이고, 어떠한 평가 차원에서 그러한 괴리가 나타나는 지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내외집단의 평가 차이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평가자가 일반인인 경우와 학생의 경우를 비교하여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에 대한 일반인과 대학생들의 지각 차이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보다 보수적인 일반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다 진보적이라 할 수 있는 학생들은 소수 집단에 대해 유능성과 따뜻함의 차원 모두에서 보다 호의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본 연구에서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의 중요 집단들을 유능성과 따뜻함의 차원에서 비교 검토할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또한 사람들이 이 집단들에 대해 가지는 신뢰성의 차원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신뢰성의 평가 차원은 지역 고정관념과 편견 등 우리 사회의 주요 갈등들에 개입되어 있다(김혜숙, 1988), 또한 Fukuyama(1995)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문화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연고를 중시하여 불투명한 형태의 교류 행위를 용인하고 장려하기 때문에 사회 전반의 신뢰 수준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 집단 갈등이 높아진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신뢰성의 차원은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잘 구분해 주는 중요한 차원이다. 즉, 사람들은 내집단에 대해서는 신뢰롭다는 고정관념을 발전시키고 반면 외집단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다(Brewer & Brown, 1998; Fiske, 1998). 이러한 점을 본 연구에서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각 집단의 특성(즉, 유능성, 따뜻함 및 신뢰성)에 대한 고정관념들과 감정들이 각 집단에 대한 태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그럼으로써, 유능성에 대한 신념, 따뜻함에 대한 신념 및 감정 평가들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Fiske 등(2002)의 분석 틀에 의거하여 우리나라 여러 주요 집단들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는 고정관념이 유능성과 따뜻함의 평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변화되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이러한 여러 집단들에 대해 그 지위와 경쟁여부에 따라 질투적 편견, 보호적 편견, 찬미적 편견 및 경멸적 편견이 발전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그럼으로써 우리나라 주요 집단 갈등에 개입되어 있는 여러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들에 대한 사람들의 지각을 체계적으로 또한 포괄적으로 비교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내외 집단 평가와 일반인과 학생의 평가 양상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 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간, 성간 상호 평가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주요 14 집단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조사 연구를 통해 알아보았다.

방 법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 조사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 주제를 검토하였다.

조사 대상자

본 조사 연구에는 서울/경기, 영남, 호남 및 충청 지역에 거주하는 총 1530 명이 참여하였다. 이들 중 일반인이 687명, 학생은 843명이었고, 남성이 788명, 여성이 822명이었다. 표1에 본 연구의 응답자 분포가 나타나 있다. 일반인은 주로 30세 이상의 사람들로, 대학의 평생교육원에 다니는 사람들, 교육대학원, 경영대학원 학생들 및 기타 아파트 거주자들이 포함되었다. 학생들은 서울대·이주대(서울·경기), 전남대(호남) 및 경남대·경북대(영남)에 재학중인 학생들이었다. 본 연구에는 또한 신체장애인 151명, 탈북자 71명 그리고 이혼녀 53명이 포함되었다. 신체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에서 상담 받고 있는 장애인들이었다. 이혼녀 집단은 각종 여성 단체에서 상담받고 있는 여성들이거나 혹은 이혼 관련 인터넷 동호회에 가입하고 있는 여성들이었다. 연령 분포는 학생들이 19세-38세(평균 22.1세)이었고 일반인의 나이는 23세-73세의 분포로 평균 40.9세였다. 또한 신체장애인은 19세-63세(평균 33.2세), 탈북자는 19세-65세(평균 38.3세)였고, 이혼녀는 30세-48세(평균 39.8세) 연령 분포를 나타내었다.

표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남 성	여 성	계
경기도	41	74	115
충청도	30	74	104
전라도	49	51	100
경상도	60	30	90
일반인 합계	180	229	409
서울대	53	48	101
이주대	68	50	118
충북대	103	99	202
전남대	69	141	210
부산대	54	57	111
경북대	42	57	99
학생 합계	389	452	841
신체장애인	100	51	151
탈북자	36	35	71
이혼녀		53	53
무응답	3	2	5
전체 합계	708	822	1530

설문지

설문지는 총 9쪽으로 이루어져 있다. 1-8쪽에는 14개 집단에 대한 질문들이 포함되었고 마지막 쪽에는 사회 인구적 측면에 대한 항목들이 포함되었다. 응답자들은 이 조사의 목적이 우리 사회의 각 사회 집단들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지각하고 느끼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을 읽었다. 설문지에 포함된 14 대상 집단들은 우리 사회의 주요 다수집단과 소수집단들로, 사회 갈등에 관련되어 있는 집단들(즉, 지역 집단, 성 집단)이거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그에 대한 편견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집단(신체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탈북자 등), 그리고 연구의 목적 상 필요한 집단들이었다. 이들은 영세민, 중산층, 부유층, 남성, 여성, 서울지역 사람, 충청, 호남, 영남 사람들, 인권운동가, 신체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탈북자 및 이혼녀 집단들이었다.

설문지의 내용은 (1) 각 집단의 지위(사회적 지위, 경제적 수준, 교육 수준), (2) 자신의 집단과 경쟁관계가 되는 정도를 묻는 문항 3문항(귀하가 속한 집단과 얼마나 경쟁관계에 있는가, 이 집단이 높은 지위를 차지하면 귀하가 속한 집단이 불리해 지는 정도, 이 집단에게 더 많은 사회진출 기회가 보장된다면 귀하의 집단이 불리해지는 정도), (3) 각 집단 사람들의 유능성을 묻는 3문항(유능성, 자신감, 지적인 정도), (+) 각 집단 사람들이 따뜻

한 정도를 묻는 3문항(따뜻함, 착함, 정이 많음), (5) 각 집단 사람들이 신뢰로운 정도를 묻는 3문항(신뢰할만하다, 의리있다, 책임감이 있다), (6) 각 집단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묻는 감정 온도(feeling thermometer) 측정 문항(0 : 매우 차갑다 - 99 : 매우 따뜻하다), (7) 각 집단에 대한 감정(감탄, 두려움, 연민, 질투, 경멸, 분노, 혐오 및 따스함)을 묻는 문항들이었다. 각 문항들에 대한 답변은, 감정온도 측정을 제외하고 모두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은 성별, 출신지역, 연령, 직업, 학력을 기재하였고, 또한 본인의 가족 중 장애인, 이혼녀 및 실향민이 있는지를 표시하였다.

조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자들을 임의로 선정하였다. 학생들에 대한 조사는 각 지역의 대학에서 강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수업 시간에 집단으로 응답하였다. 일반인들은 강의 시간에 응답하거나 개별적으로 응답하였다. 신체장애인, 탈북자 및 이혼녀 집단은 개별적으로 응답하였다.

결 과

각 대상 집단의 유능성과 따뜻함 평점 평균

각 대상 집단에 대한 유능성과 따뜻함 평가의 평균과 그 차이의 유의미도를 paired t 검사로 검토한 값이 표 2에 나타나 있다. 유능성을 묻는 세 문항의 문항 신뢰도를 대상 집단별로 구해본 결과 $\alpha=.54-.73$ 으로 변화되었고, 따뜻함의 평가는 $\alpha=.72-.85$ 였다.

표 2에 나타나 있듯이 전체 응답자들은 본 조사 대상 14개 집단 중 인권운동가를 가장 유능한 집단으로 평가하였고, 그 다음으로 부유층, 서울사람, 남성 등의 순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신체장애인, 탈북자, 외국인노동자 및 영세민을 가장 유능하지 않은 집단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따뜻함 평가에 있어서는 신체장애인, 영세민, 그리고 인권운동가를 제일 높게, 그리고 이혼녀, 서울사람 및 부유층을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각 집단에 대한 유능성과 따뜻함 평가를 비교해 보면, 이혼녀 집단에 대한 평가에서의 차이만 유의미하지 않고, 나머지 집단에

에 대해서는 모두 유능성과 따뜻함 평가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본 연구의 가설대로, 많은 경우 어떤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은 일방향적으로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기 보다는 유능성이 높은 집단은 따뜻함의 특성이 낮은 것으로, 그리고 따뜻함이 높게 지각되는 집단은 유능성이 낮은 것으로 지각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준다. 표2에서 보면, 영세민, 신체장애인, 탈북자 및 외국인 노동자 등의 소수 집단에 대해서는 따뜻하지만 덜 유능하다고 지각하였고, 반면 부유층, 서울사람 및 남성 등의 다수 집단에 대해서는 유능하지만 덜 따뜻하다고 지각하였다.

표 2. 전체 응답자가 각 집단에 대해 지각한 유능감과 따뜻함의 평균(SD)

집 단	유능감	따뜻함	t(df)
영세민	2.20(0.65)	3.51(0.74)	-54.73(1519)**
인권운동가	3.86(0.68)	3.42(0.80)	19.43(1518)**
전라도사람	3.00(0.44)	3.11(0.68)	-6.76(1514)**
여성	3.22(0.51)	3.40(0.55)	-12.66(1516)**
신체장애인	2.45(0.60)	3.52(0.71)	-49.57(1515)**
경상도사람	3.14(0.42)	3.08(0.54)	3.80(1516)**
충청도사람	3.03(0.38)	3.18(0.53)	-11.62(1516)**
중산층	3.30(0.48)	3.08(0.52)	13.71(1513)**
외국인노동자	2.26(0.60)	3.19(0.67)	-45.63(1506)**
남성	3.38(0.49)	2.94(0.51)	26.54(1502)**
서울사람	3.49(0.56)	2.65(0.63)	36.45(1505)**
이혼녀	2.79(0.55)	2.82(0.59)	-1.62(1500)
부유층	3.70(0.63)	2.31(0.74)	54.40(1502)**
탈북자	2.44(0.66)	2.99(0.65)	-27.97(1501)**

주) 1. ** $p<.01$
 2. $N=1530$
 3. 평가는 5점 척도 상에서 이루어졌음

군집분석

각 집단에 대해 평정한 유능성 점수 평균과 따뜻함 점수 평균을 이용하여 유능성*따뜻함 차원에서 14개의 집단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알기 위해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은 두 단계로 진행하였는데, 이렇게 두 단계로 군집분석을 진행하는 것은 Hair, Anderson, Tatham과 Black(1995)의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이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 군집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위계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군

집분석에서 군집화 방법은 Ward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Ward의 방법은 군집내 제공거리의 전반적인 합에서 가장 작은 증가를 가진 군집들을 결합하는 방법이다(Ward, 1963). 첫 단계에서 계수의 평가와 군집의 수를 결정한다음, K-평균 군집분석(K-means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여 군집들에 들어갈 집단을 결정하였다. 이때 군집화 방법은 유사 역치 방법(parallel threshold method)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전체 응답자, 일반인 응답자 및 학생 응답자 별로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전체 응답자의 답변을 군집분석한 결과가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K-means 분석 결과, 표 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6군집이 가장 적합하게 나타났다. 즉, 4군집화에서 5군집화로 되면 계수의 증가량이 0.036인데, 6군집화를 하면 계수의 증가가 0.077로 되고 7군집화를 하면 계수 증가분이 0.070로 6군집이 보다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림1에서 보면 이 군집들은 군집1(영세민, 신체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군집2(탈북자, 이혼녀), 군집3(여성, 중산층, 충청, 경상, 전라), 군집4(남성, 서울), 군집5(부유층) 및 군집 6(인권운동가)이었다. 그림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대표적 소수집단들이라고 볼 수 있는 영세민, 신체장애인 및 외국인 노동자 집단들(군집1)에 대해서는 유능성은 낮지만 따뜻함이 제일 높은 집단으로 지각하였고, 반면 대표적 다수 집단인 부유층(군집5)에 대해서는 유능성은 높지만 가장 따뜻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인권운동가 집

단(군집6)에 대해서는 유능성, 따뜻함이 둘다 높은 것으로 지각하였다. 탈북자와 이혼녀(군집2) 집단은 다른 집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능성, 따뜻함 모두 낮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 집단에 대해서도 유능성보다는 따뜻함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군집3에 속해 있는 충청, 전라, 경상, 여성 및 중산층 집단에 대해서는 유능성, 따뜻함 모두 중간 정도로 평가하였고, 서울 사람과 남성 집단으로 이루어진 군집4에 대한 평가는 부유층에 대한 평가와 비슷하나, 부유층에 대해서보다 약간 덜 유능하지만 약간 더 따뜻한 집단으로 지각되었다.

표 3. K-means 군집분석 결과

집 단	전 체			
	4군집	5군집	6군집	7군집
영세민	1	1	5	1
인권운동가	2	2	2	2
전라도사람	4	4	4	4
여성	2	4	4	4
신체장애인	1	1	5	1
경상도사람	4	4	4	4
충청도사람	4	4	4	4
중산층	4	4	4	7
외국인노동자	1	1	5	3
남성	4	4	3	7
서울사람	3	5	3	7
이혼녀	4	3	6	6
부유층	3	5	1	5
탈북자	1	3	6	3
계수	0.058	0.094	0.171	0.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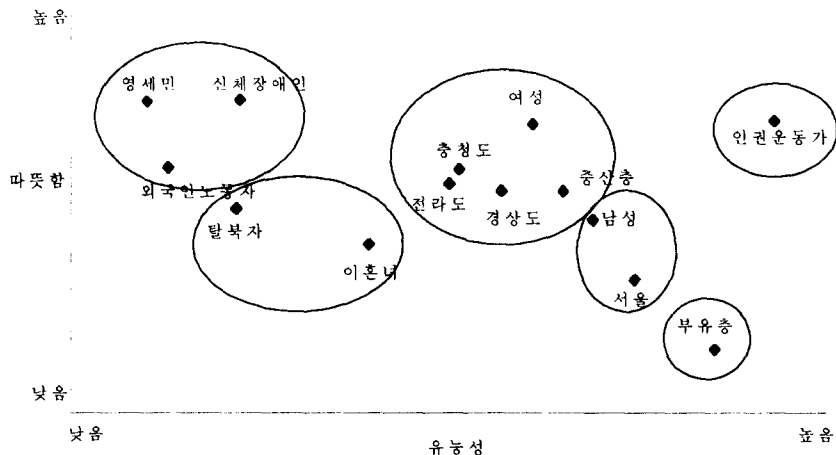


그림 1. 대상 집단들에 대한 유능성과 따뜻함 차원에서의 군집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

이들 집단의 유능성과 따뜻함 지각의 평가 차이에 대한 t 검증(paired-t test) 결과가 표4에 나타나 있다. 표 4에 나타나 있듯이, 군집1(신체장애, 영세민, 외국인노동자), 군집2(이혼녀, 탈북자)와 군집3(여성, 충청, 중산층, 경상, 전라)에 대해서는 따뜻함을 유능성보다 더 높게 평가하였으며, 반면 군집4(서울, 남성), 군집5(부유층) 및 군집6(인권운동가)에 대해서는 유능성을 따뜻함보다 더 높게 평가하였다. 그러나 효과의 크기로 보면 군집1, 4 및 5의 경우 어느 정도 큰 효과이지만, 군집 2, 3 및 군집 6에 있어서는 그 효과가 비록 유의미했지만 그다지 크지 않았다.

표 4. 군집별 유능성과 따뜻함 평가 평균과 차이 검증

집 단(N)	유능성(SD)	따뜻함(SD)	t(df)
군집 1(1527)	2.31(0.51)	3.41(0.58)	-62.44(1526)***
군집 2(1509)	2.62(0.52)	2.91(0.53)	-19.24(1508)***
군집 3(1527)	3.14(0.32)	3.17(0.39)	-3.39(1526)**
군집 4(1510)	3.44(0.46)	2.80(0.50)	36.27(1509)***
군집 5(1503)	3.71(0.63)	2.31(0.75)	54.40(1502)***
군집 6(1519)	3.86(0.68)	3.43(0.80)	19.44(1518)***

p<.01, *p<.001

군집 1 : 영세민, 신체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군집 2 : 탈북자, 이혼녀

군집 3 : 여성, 충청도 사람,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중산층

군집 4 : 남성, 서울 사람

군집 5 : 부유층

군집 6 : 인권운동가

그림 2와 그림 3에는 일반인과 학생의 응답을 각각 군 집 분석한 결과가 나타나 있다. 이에서 보듯이 학생들은 일반인에 비해 지역 집단을 더욱 구분해서 지각하고 있을 을 알 수 있다. 즉, 일반인들은 호남인과 영남인을 동일한 군집(즉, 군집3)으로 분류하여 그 유능성과 따뜻함이 중간 정도로 거의 비슷하게 평가한 반면, 학생들은 영남 사람을 호남 사람과 다른 군집으로 분류하여, 영남 사람은 호 남 사람보다 더욱 유능하지만 덜 따뜻한 집단으로 지각하 였다. 학생들은 또한 외국인 노동자 집단을 일반인이 지 각하는 정도보다 더 따뜻하고 덜 유능하게 지각하여 군집 1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었고, 반면 서울사람들에 대하 여는 더 유능하고 덜 따뜻하다고 지각하여 군집5로 분류 되었다. 이러한 일반인과 학생의 집단에 대한 지각 차이 에 대해서는 후에(표 11) 다시 논의할 것이다.

집단의 지위, 경쟁여부와 유능성, 따뜻함 평가와의 상관

다음, Fiske 등 (2002)이 제안한대로, 집단의 지위 지 각이 유능성 지각과 관련되고 내집단과의 경쟁여부 지 각이 따뜻함 지각과 관련되는 지를 검토하기 위해 14개 집단들에 대한 여러 변인들의 평균 측정치간의 상관을 구하였다. 표 5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집단 지위는 유능성과 높은 정적 상관($r=.91$)을 가지고 또한 집단의 (내집단과의) 경쟁 정도는 따뜻함 평가와 높은 부적 상 관($r=-.75$)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Fiske 등(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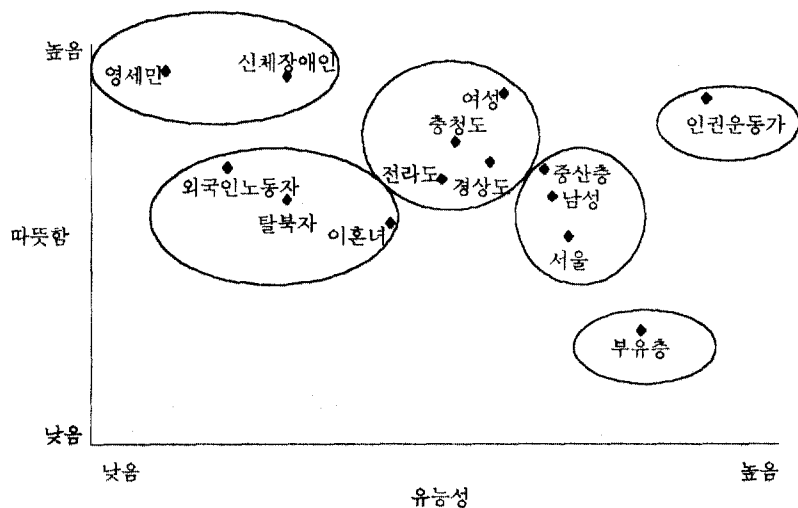


그림 2. 일반인 응답자의 응답에 대한 군집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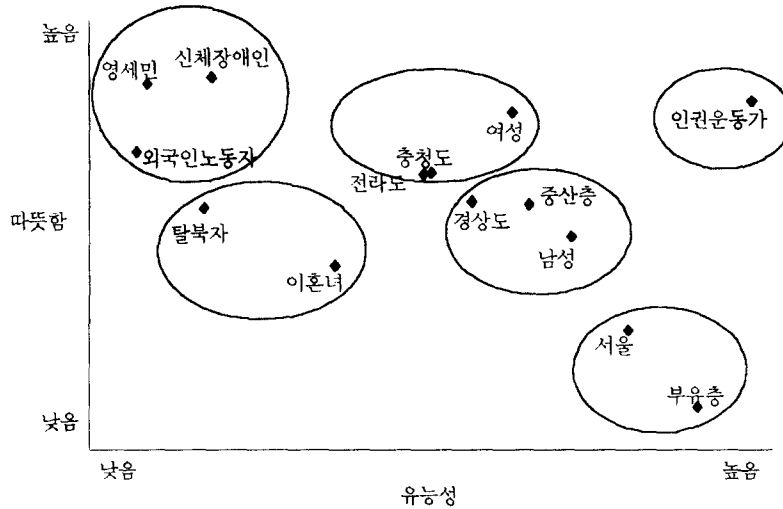


그림 3. 학생 응답자의 평가에 대한 군집 분석

의 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Fiske 등 (2002)의 연구 결과와 달리 지위와 경쟁 여부가 높은 상관($r=.92$)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집단의 지위가 높을수록 내집단과의 경쟁이 높은 것으로 지각하였다. 경쟁 정도는 또한 유능성 평가와도 높은 상관($r=.73$)을 보였으며, 한편 지위도 따뜻함과 높은 부적 상관($r=-.67$)을 나타내었다. 부록1에 각 집단에 대한 지위, 경쟁여부, 신뢰성 및 감정온도 평가가 나타나 있다.

표 5. 14개 집단에 대한 지위, 경쟁, 유능성, 따뜻함, 신뢰성 및 감정온도간의 Pearson상관계수

	지 위	경 쟁	유능성	따뜻함	신뢰성	감정온도
지위	1.00					
경쟁	.92**	1.00				
유능성	.91**	.73**	1.00			
따뜻함	-.67**	-.75**	-.43	1.00		
신뢰성	-.08	-.28	.23	.69**	1.00	
감정온도	-.45	-.56*	-.20	.94**	.80**	1.00

** $p<.01$, $df=12$

집단에 대한 감정

다음, 각 집단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평가하게 한 결과가 표 6에 나타나 있다. 각 군집별로 감정 평가 점수 차이에 대한 F검증 실시 결과 모든 군집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모든 경우 $p<.001$). 예상했던 대로, 신체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및 영세민 등(군집1) 가장 지위가 낮게 평가된($m=1.82$) 소수 집단에 대해서는 연민의 감정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 따스한 감정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반면, 가장 지위가 높게 평가된($m=4.24$) 군집5(즉, 부유층)에 대해서는 질투의 감정이 가장 높았다. 유능성과 따뜻함이 모두 높게 평가된 군집6(즉, 인권운동가)에 대해서는 감탄의 감정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 따스함의 감정이었다. 유능성과 따뜻함이 상대적으로 모두 낮은 집단(즉, 이혼녀, 탈북자)에 대해서는 예상과는 달리 그리고 Fiske 등(2002)의 결과와 달리, 혐오나 경멸의 감정은 낮게 나타났고 오히려 연민의 감정이 중간 정도($m=3.08$)로 다른 감정 점수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유능성과 따뜻함이 비슷하게 평가된 군집3(즉, 전라, 경상, 충청, 여성 및 중산층)에 대해서도 그다지 뚜렷하게 나타난 감정은 없었는데 따스한 느낌이 3.0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군집4(즉, 서울사람, 남성)의 경우에도 뚜렷이 나타난 감정은 없었다.

내집단과 외집단의 평가 차이

앞에서 언급한대로, 집단에 대한 평가에 있어 내집단의 평가와 외집단의 평가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평가 대상으로 삼은 집단들 중 9개 집단(즉,

표 6. 군집별 감정 평가 평균 (()은 표준편차)

	1군집(1510)	2군집(1510)	3군집(1509)	4군집(1509)	5군집(1506)	6군집(1507)
감 탄	2.59(0.86)	2.70(0.95)	2.66(0.70)	2.58(0.82)	2.83(1.21)	3.52(1.08)
두려움	2.29(0.91)	2.39(0.96)	2.15(0.75)	2.41(0.90)	2.52(1.17)	2.15(1.02)
연 민	3.62(0.81)	3.08(0.89)	2.41(0.76)	2.17(0.82)	1.79(0.91)	2.50(1.09)
질 투	1.65(0.75)	1.74(0.82)	2.07(0.80)	2.40(0.97)	3.20(1.26)	1.87(0.93)
경 멸	1.74(0.78)	1.87(0.84)	1.88(0.76)	2.01(0.86)	2.50(1.21)	1.80(0.97)
분 노	1.72(0.84)	1.83(0.87)	1.88(0.79)	2.02(0.90)	2.52(1.22)	1.84(1.04)
혐 오	1.81(0.81)	1.84(0.86)	1.82(0.77)	1.93(0.85)	2.39(1.20)	1.77(0.98)
따스함	3.25(0.70)	2.78(0.72)	3.06(0.56)	2.66(0.68)	2.17(0.86)	3.22(1.04)

주) 모든 군집별 F검증이 $p < .01$ 이었음

- 1 군집 : 영세민, 신체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 2 군집 : 탈북자, 이혼녀
- 3 군집 : 전라도사람, 경상도사람, 충청도사람, 여성, 중산층
- 4 군집 : 서울사람, 남성
- 5 군집 : 부유층
- 6 군집 : 인권

네 개의 지역 집단, 여성, 남성, 탈북자, 신체장애인 및 이혼녀 집단의 경우 내집단 응답자와 외집단 응답자를 구분할 수 있었다. 지역 집단은 출신 지역 응답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이들 9개 집단에 대해 유능성과 따뜻함의 차원에서 내집단의 평가와 외집단의 평가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가 표 7과 표 8에 나타나 있는데, 각 대상 집단에 대해 각각 내집단의 평가와 외집단의 평가 차이를 검증해 본 것이다.

그 결과, 먼저 유능성 평가(표 7)에 있어서 내집단의 평가가 외집단의 평가에 비해 더 높은 경우가 5개의 집단(즉, 호남, 이혼녀, 여성, 탈북자 및 신체장애인)에서 나타났다. 남성 집단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외집단(즉, 여성) 평가($m=3.43$)가 내집단의 평가($m=3.33$)보다 더 높았다. 내집단이 평가할 때 외집단이 평가할 때보다 더욱 유능하다고 평가한 집단 중 그 차이가 가장 큰 집단은 탈북자 집단(즉, 2.40 대 3.47)이었다. 그 다음 신체장애인, 이혼녀, 여성 및 호남인의 순서로 내집단과 외집단 평가의 괴리가 컸다. 즉, 탈북자, 신체장애인 등의 지위가 낮은 소수 집단들이 자신의 집단에 대해 다른 집단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보다 더욱 유능하다고 지각하였다. 그러나, 9집단의 순위 별로 비교해 보면 탈북자의 경우를 제외하면 내집단의 평가 순위와 외집단의 평가 순위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사람들은 내집단을 평가함에 있어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

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내집단 편애를 보이지만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정도의 평가(즉, 평가 순위가 뒤바뀔 정도의 평가)를 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탈북자의 경우, 내집단의 평가 순위는 9집단 중 2위였는데 반해 외집단 평가는 최하위(즉, 9위) 평가 순위였다.

표 7. 유능성 평가에 있어 내집단 평가와 외집단 평가의 차이

대상 집단	내집단 평가 (SD)	외집단 평가 (SD)	$t(df)$
서울사람	3.52(0.54)	3.49(0.57)	0.90(1493)
충청도사람	3.06(0.43)	3.03(0.36)	1.15(344.52) ¹
전라도사람	3.06(0.44)	2.98(0.45)	2.93(1498)**
경상도사람	3.12(0.42)	3.15(0.43)	-1.34(875.91) ¹
이혼녀	2.98(0.69)	2.79(0.54)	2.52(1514)*
남성	3.33(0.49)	3.43(0.48)	-4.00(1507)***
여성	3.30(0.52)	3.14(0.48)	6.21(1509.55)****
탈북자	3.47(0.66)	2.40(0.63)	14.23(1514)***
신체장애인	2.66(0.72)	2.43(0.58)	3.74(171.10) ¹ ***

주) ¹ 등 분산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아 자유도를 수정한 것임. 이하 자유도가 정수가 아닌 경우도 동일함.

2. 지역 집단은 출신지역 집단임

*** $p < .001$, ** $p < .01$

따뜻함 평가에 있어서는 내외집단 평가 차이가 더욱 보편적으로 나타나, 신체장애인의 경우만 제외하고 모든 8개의 집단에서 내집단이 평가할 때 외집단이 평가

할 때보다 더 따뜻하다고 평가하였다. 이중 탈북자 집단에 대한 내외집단 평가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 다음 호남 및 이혼녀의 순으로 그 괴리가 컸다. 따뜻함 평가에 있어서는 서울 사람, 남성 등의 다수 집단의 경우에도 자신들을 평가할 때 다른 집단의 사람들이 평가할 때에 비해 더욱 따뜻하다고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평가의 순위로 살펴보면, 탈북자 집단의 내외집단 평가 순위의 괴리가 역시 가장 컸고(1순위 대 9순위) 그 다음이 호남인(2위 대 5위)이었다. 경상도 집단의 경우 순위별로 보면 외집단의 평가 순위가(4위) 오히려 내집단 평가 순위(7위)보다 더 높았다.

표 8. 따뜻함 평가에 있어서 내집단과 외집단 평가의 차이

대상 집단	내집단 평가 (SD)	외집단 평가 (SD)	t(df)
서울사람	2.79(0.61)	2.60(0.63)	4.99(558.99)***
충청도사람	3.39(0.59)	3.14(0.51)	6.97(1467)***
전라도사람	3.52(0.61)	2.98(0.65)	14.44(648.11)***
경상도사람	3.20(0.48)	3.03(0.56)	5.81(1497)***
이혼녀	3.24(0.74)	2.81(0.58)	4.50(53.28)***
남성	3.01(0.52)	2.88(0.49)	5.29(1502.92)***
여성	3.50(0.55)	3.30(0.55)	7.12(1516)***
탈북자	3.89(0.71)	2.40(0.62)	10.99(76.42)***
신체장애인	3.47(0.69)	3.58(0.72)	-1.03(1521)

***p<.001

한편, 신뢰성에 대한 내집단과 외집단의 평가 차이는 유능성 평가나 따뜻함 평가와 또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즉, 외집단의 평가는 남성, 신체장애인, 경상도사람 등의 순으로 신뢰성 평가가 높았고, 서울 사람, 탈북자 및 이혼녀 집단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내 집단의 평가에 있어서는 역시 탈북자 집단의 평가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이혼녀 집단이었고 그 다음으로 높은 내집단 신뢰성 평가를 한 집단은 호남인 집단이었다. 이들 세 집단들에 있어서 내집단 평가의 순위가 외 집단 평가의 순위와 크게 차이가 났다(탈북자 1순위 대 8순위, 이혼녀 2순위 대 9순위, 호남 3순위 대 6순위). 반면, 남성과 서울 사람들의 내집단 평가는 외집단의 평가 순위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표 9. 신뢰성 평가에 있어서의 내집단과 외집단 평가 차이

집 단	내집단(SD)	외집단(SD)	t(df)
서울사람	2.93(0.50)	2.78(0.53)	-4.85(580.88)***
충청도사람	3.22(0.56)	3.04(0.42)	-4.86(329.60)***
전라도사람	3.25(0.48)	2.91(0.59)	-11.14(745.04)***
경상도사람	3.22(0.47)	3.06(0.49)	-5.84(879.44)***
이혼녀	3.28(0.63)	2.72(0.57)	-6.91(1523)***
남성	3.17(0.53)	3.29(0.49)	4.35(1521)***
여성	3.17(0.53)	2.95(0.52)	-8.35(1516)***
탈북자	3.69(0.53)	2.75(0.61)	-12.92(1522)***
신체장애인	3.21(0.59)	3.17(0.60)	-0.84(1519)

***p<.001

마지막으로, 각 집단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감정 온도 평가에 있어서 내외집단 평가는 따뜻함의 평가와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 내외집단 평가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신체장애인 집단과 외집단 평가가 내집단 평가보다 더 높은 남성 집단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곱 집단에서 내집단 평가가 외집단 평가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중 특히 탈북자 집단, 호남인 및 이혼녀 집단의 경우에서 내외집단 평가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10. 감정 온도 평가에 있어서의 내외집단 평가 차이

집 단	내집단(SD)	외집단(SD)	t(df)
서울사람	49.25(16.31)	44.83(17.54)	-4.32(589.93)***
충청도사람	63.97(17.02)	56.42(14.59)	-6.71(349.86)***
전라도사람	68.06(15.87)	50.06(17.84)	-17.20(1502)***
경상도사람	60.49(15.52)	53.18(16.31)	-7.95(987.85)***
이혼녀	60.70(20.54)	45.45(17.28)	-6.27(1525)***
남성	51.66(15.18)	56.13(14.48)	5.85(1521)***
여성	68.35(15.61)	60.44(17.19)	-9.42(1521)***
탈북자	69.70(13.06)	47.80(18.47)	-13.66(87.14)***
신체장애인	64.47(19.32)	63.58(19.44)	-0.54(1526)

***p<.001

일반인과 학생 평가의 차이

각 집단에 대한 유능성과 따뜻함 평가에 있어 일반인과 학생이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해 보기 위해 각 집단 평가에 대해 2(평가 집단 : 일반인 대 학생) x 2(평가 차

표 11. 각 집단의 유능성과 따뜻함에 대한 일반인과 학생의 평가

대상 집단	평가 항목	일반인(631)			학생(839)			F ¹
		유능성	따뜻함	t(df)	유능성	따뜻함	t(df)	
영세민		2.23(0.73)	3.50(0.79)	-33.17(680)***	2.18(0.59)	3.54(0.72)	-44.38(838)***	3.58
인권운동가		3.77(0.71)	3.39(0.81)	11.02(679)***	3.94(0.65)	3.47(0.79)	16.40(838)***	4.81*
전라도사람		3.03(0.48)	3.07(0.70)	-1.72(675)	2.98(0.42)	3.15(0.66)	-7.54(838)***	14.57**
여성		3.20(0.54)	3.41(0.58)		3.24(0.49)	3.41(0.54)		1.48
신체장애인		2.57(0.65)	3.47(0.78)	-26.27(679)***	2.36(0.54)	3.56(0.65)	-45.49(835)***	51.68***
경상도사람		3.16(0.45)	3.13(0.60)		3.12(0.40)	3.04(0.50)		2.06
충청도사람		3.07(0.41)	3.22(0.58)		3.00(0.35)	3.16(0.49)		0.16
중산층		3.33(0.54)	3.11(0.58)		3.30(0.44)	3.04(0.47)		1.51
외국인노동자		2.41(0.64)	3.11(0.72)	-23.38(674)***	2.15(0.55)	3.26(0.64)	-42.82(831)***	106.69***
남성		3.35(0.52)	3.00(0.56)	13.56(668)***	3.41(0.46)	2.96(0.46)	24.12(833)***	24.52***
서울사람		3.40(0.59)	2.83(0.67)	16.54(670)***	3.58(0.53)	2.50(0.57)	36.51(834)***	127.44***
이혼녀		2.88(0.59)	2.89(0.66)		2.73(0.51)	2.78(0.53)		1.72
부유층		3.61(0.68)	2.46(0.82)	28.44(669)***	3.78(0.57)	2.19(0.66)	50.86(832)***	77.77***
탈북자		2.58(0.74)	2.98(0.72)	-13.60(667)***	2.35(0.59)	3.02(0.60)	-26.11(833)***	46.51***

- 주) 1. F는 집단(일반인, 학생)×평가(유능성, 따뜻함) 상호 작용에 대한 F 값임
 2. t는 각 일반인 평가자와 학생 평가자의 경우에서 유능성과 따뜻함 평가에 대한 paired-t 검증 결과임.
 3. *p<.05, **p<.01, ***p<.001

원: 유능성 대 따뜻함)의 혼합 변량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인권운동가, 호남인, 신체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남성, 서울사람, 부유층 및 탈북자 집단에 대한 평가에 있어 2원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2원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경우 일반인과 학생 내에서 각각 유능성 평가와 따뜻함평가가 차이가 나는지를 각각 paired-t 검증하였다. 표 11에 각 대상 집단에 대한 평가 평균이 나타나 있다. 표 11에 나타나 있듯이, 이와 같은 상호작용은 모든 경우에서 유능성과 따뜻함의 평가 차이가 학생이 일반인에서 보다 더 크게 나타난 형태를 보였다. 즉, 학생들이 일반인보다 대상 집단에 대해 더 극단적인 평가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의 형태는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에 대해 다르게 나타났다. 즉, 학생은 일반인보다 호남인, 신체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및 탈북자 등의 소수 집단에 대해서는 덜 유능하지만 더 따뜻하다고 평가하였고, 반면 남성, 서울사람 및 부유층 등의 다수 집단을 평가할 때는 더욱 유능하지만 덜 따뜻하다고 평가하였다. 다시 말하면 학생은 일반인보다 소수 집단은 더욱 따뜻하고 덜 유능하게 평가하고, 다수 집단에 대해서는 더욱 유능하게 그러나 덜 따뜻하게 평가하여, 일반인보다 더욱 고정관념적으로 평가하였다.

학생과 일반인은 또한 각 집단에 대한 감정 온도 평가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다. 표12에 나타나 있듯이, 학생은 일반인보다, 서울사람, 남성, 부유층 등의 다수 집단과 경상도, 충청도 및 중산층에 대한 감정온도가 낮았다. 또한 학생은 일반인보다 이혼녀에 대한 감정 온도, 유능성 및 따뜻함의 평가가 낮았다.

표 12. 일반인과 학생이 각 집단에 대해 가지는 감정 온도 평균

집 단	일반인(SD)	학 생(SD)	t(df)
영세민	58.20(19.99)	59.22(19.04)	-1.02(1527)
인권운동가	61.88(22.50)	62.22(22.57)	-.297(1526)
전라도사람	54.38(19.38)	54.46(18.74)	-.078(1526)
여성	65.09(17.23)	64.37(16.46)	.836(1526)
신체장애인	64.04(19.98)	63.36(18.96)	.679(1526)
경상도사람	57.75(16.84)	53.52(15.82)	5.06(1424.45)***
충청도사람	59.40(16.10)	56.57(14.61)	3.57(1399.35)***
중산층	57.95(16.36)	55.20(14.39)	3.47(1373.62)**
외국인노동자	53.56(18.98)	54.85(18.65)	-1.33(1522)
남성	55.49(15.08)	52.23(14.82)	4.23(1525)***
서울사람	51.14(17.48)	41.64(16.13)	11.03(1525)***
이혼녀	49.37(19.02)	43.20(15.86)	6.79(1332.97)***
부유층	40.77(21.35)	32.88(17.58)	7.77(1322.44)***
탈북자	49.62(20.08)	48.21(17.74)	1.44(1378.79)

p<.01, *p<.001

여성과 남성의 상호 평가

여성과 남성이 남녀에 대해 서로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기 위해 각 특성 평가(즉, 유능성, 따뜻함, 신뢰성 및 감정 온도)별로 여성과 남성에 대한 평가의 차이를 t 검증하였다. 표 13에 전체 응답자의 평균 및 그 차이 검증 결과가 나타나 있다. 표 13에서 보면 전체 남성들은 유능성과 신뢰성에 있어서 남성을 여성보다 더 높게 평가했고, 반면 따뜻함과 감정 온도에 있어서는 여성을 남성보다 더 높게 평가하였다. 전체 여성들은 남성 평가자들과 마찬가지로 남성을 여성보다 더 유능하다고 평가했으며 따뜻함과 감정 온도에 있어서는 여성을 남성보다 더 높게 평가하였다. 전체 여성들은 신뢰성에 대해서는 여성과 남성에 대해 비슷한 평가를 하였다. 이렇게 볼 때, 남성 평가자들과 여성 평가자들은 여성과 남성의 유능성, 따뜻함 그리고 감정 온도에 대해 유사한 방향으로 평가하였고, 단지 신뢰성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만 차이를 보였다. 물론 이때 남성과 여성의 남녀에 대한 평가 차이에 있어서는 그 정도가 달라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유능성에 있어서의 남성 우월의 정도를 더 작게 평가하였으며, 따뜻함과 감정 온도에 있어서는 여성의 우월을 더 크게 평가하였다. 일반인과 학생의 남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의 성차이도 전체 응답자와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표 13. 남녀 응답자(전체)의 남녀 평가

평가항목	여성 대상(SD)	남성 대상(SD)	$t(df)$
남성응답자(전체)			
유능성(697)	3.14(0.48)	3.33(0.48)	-9.31(696)***
따뜻함(701)	3.30(0.55)	3.01(0.49)	12.13(700)***
신뢰성(703)	2.95(0.52)	3.29(0.49)	-14.25(702)***
온도(705)	60.45(17.20)	56.13(14.47)	5.83(704)***
여성응답자(전체)			
유능성(808)	3.30(0.52)	3.43(0.49)	-6.79(807)***
따뜻함(808)	3.50(0.55)	2.88(0.52)	26.35(807)***
신뢰성(815)	3.17(0.53)	3.17(0.53)	0.13(814)
온도(817)	68.35(15.61)	51.66(15.19)	26.41(816)***

*** $p < .001$

지역간 상호 평가

다음, 서울, 호남, 충청 및 경상도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평가하였는가를 검토하였다. 먼저 유능성 평가(표 14)에 있어서는 모든 지역 응답자가 서울 사람을 제일 높게 평가했고, 그 다음이 경상도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 호남 사람과 충청 사람을 거의 비슷한 정도로 낮게 평가하였다. 따뜻함의 평가(표 15)에서는 그러나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서울 사람을 제일 낮게 평가했으며 전라도, 경상도 및 충청도 사람들 모두 자신의 내집단을 가장 따뜻하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서울 사람들은 충청도

표 14. 대상 지역과 평가자 지역에 따른 유능성 평가 (전체 응답자; ()은 SD)

응답자(N) \ 대상	서울사람	경상도사람	전라도사람	충청도사람	$F(df1, df2)$
서울사람(337)	3.53(0.53)	3.10(0.43)	2.96(0.45)	2.99(0.37)	$F(1.8, 615.3) = 196.58^{***}$
경상도사람(446)	3.47(0.58)	3.12(0.45)	2.93(0.40)	2.99(0.36)	$F(2.3, 1019.9) = 177.54^{***}$
전라도사람(363)	3.53(0.54)	3.19(0.39)	3.06(0.44)	3.08(0.32)	$F(2.4, 852.9) = 140.24^{***}$
충청도사람(261)	3.13(0.45)	3.12(0.45)	3.04(0.48)	3.06(0.43)	$F(2.6, 673.3) = 68.44^{***}$

*** $p < .001$

표 15. 대상 지역과 평가자 지역에 따른 따뜻함 평가 (전체 응답자; ()은 SD)

응답자(N) \ 대상	서울사람	경상도사람	전라도사람	충청도사람	$F(df1, df2)$
서울사람(335)	2.79(0.61)	3.01(0.62)	3.02(0.71)	3.12(0.58)	$F(2.5, 823.6) = 33.85^{***}$
경상도사람(447)	2.55(0.61)	3.20(0.49)	2.96(0.56)	3.13(0.47)	$F(2.4, 1059.2) = 175.44^{***}$
전라도사람(361)	2.61(0.58)	3.02(0.48)	3.52(0.61)	3.13(0.44)	$F(2.1, 754.4) = 216.90^{***}$
충청도사람(260)	2.53(0.60)	2.95(0.55)	2.90(0.66)	3.39(0.59)	$F(2.6, 665.2) = 37.57^{***}$

*** $p < .001$

사람을 제일 따뜻하게 평가하였고 그 다음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을 동일한 정도로 평가했으며 그리고 서울 사람을 제일 덜 따뜻하다고 지각하였다. 충청도 사람도 서울 사람과 비슷한 평가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경상도와 전라도 사람들은 서로 상대에 대해 충청도 사람들보다 덜 따뜻한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렇게 볼 때, 외집단이 평가하는 경우 충청도 사람들이 제일 따뜻하다고 평가되었고 서울 사람들이 제일 낮게 평가되었다.

신뢰성 평가(표 16)에 있어서는 따뜻함 평가와는 약간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즉, 서울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서울 사람을 제일 신뢰롭지 못하다고 평가하였다. 서울 사람은 충청도 사람과 경상도 사람을 비슷한 정도로 제일 신뢰롭다고 평가하였고, 서울 사람과 전라도 사람을 그 다음으로 비슷하게 평가하였다. 경상도, 전라도 및 충청도 사람 모두 자신의 내집단을 제일 신뢰롭게 평가하였다. 서울 사람들과 충청도 사람들 및 경상도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보다 더 신뢰롭다고 평가하였다. 경상도 사람들은 호남사람들을 충청도 사람보다 덜 신뢰롭다고 지각했으나 호남 사람들은 경상도와 충청 사람들을 동일한 정도로 평가하였다. 요약하면, 신뢰성 평가에 있어서는 외집단 평가의 경우 경상도사람과 충청도 사람이 비슷한 정도로 좋게 평가되었고, 그 다음이 호남인에 대한 평가

였고, 서울 사람이 제일 낮게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각 지역 집단에 대한 태도 평가인 감정 온도 평가(표 17)에 있어서는 지역 차이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경상도, 전라도 및 충청도 사람들 모두 서울 사람들에 대해 제일 차갑게 느꼈으며, 자신의 내집단을 제일 호의적으로 평가하였다. 서울 사람들은 충청 사람들을 제일 높게 평가했으며, 그 다음이 경상도였고, 그리고 서울 사람과 호남인을 제일 낮게 평가하였다. 경상도와 전라도 사람들은 충청도 사람들을 두 번째로 높게 평가하였으며 서로에 대해서는 세 번째로 평가하였다. 서울 사람들과 충청도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보다 더 높게 평가하였다. 이렇게 볼 때, 감정 온도 평가에 있어서 외집단이 평가할 때, 충청, 경상 및 전라의 순으로 평가되었으며, 역시 서울 사람들이 제일 낮은 평가를 받았다.

각 지역인에 대한 일반인과 학생들의 평가가 각각 부록 2의 표 1-표 4 및 표 5-표 8에 나타나 있다. 일반인(즉 서울, 경상 및 충청 사람들에 있어서는 특히 신뢰성의 평가 그리고 감정온도 평가에 있어서 호남사람들을 서울 사람들에 대해서만큼 낮게 평가하였다. 학생들은 서울사람들을 제일 유능하지만 제일 덜 따뜻하고 덜 신뢰롭다고 평가하였으며 또한 제일 낮은 감정 온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평가는 호남 사람들에 대

표 16. 대상 지역과 평가자 지역에 따른 신뢰성 평가 (전체 응답자; ()은 SD)

대상 \ 응답자(N)	서울사람	경상도사람	전라도사람	충청도사람	F(df1,df2)
서울사람(339)	2.93(0.50)	3.04(0.50)	2.91(0.60)	3.01(0.48)	F(2.5,854.7)=6.89***
경상도사람(448)	2.70(0.51)	3.22(0.46)	2.87(0.52)	3.05(0.38)	F(2.4,1086.7)=130.95***
전라도사람(361)	2.81(0.50)	3.03(0.42)	3.25(0.48)	3.03(0.36)	F(2.3,830.8)=89.21***
충청도사람(263)	2.77(0.51)	3.09(0.51)	2.90(0.62)	3.22(0.56)	F(2.5,655.2)=44.15***

***p<.001

표 17. 대상 지역과 평가자 지역에 따른 감정 온도 평가 (전체 응답자; ()은 SD)

대상 \ 응답자(N)	서울사람	경상도사람	전라도사람	충청도사람	F(df1,df2)
서울사람(341)	49.25(16.31)	53.00(16.50)	50.66(18.40)	55.49(15.88)	F(2.6,867.5)=13.64***
경상도사람(450)	42.71(16.91)	60.49(15.51)	48.94(16.65)	56.38(12.96)	F(2.5,1194.0)=156.11***
전라도사람(364)	45.88(16.68)	53.07(15.70)	68.06(15.87)	56.31(14.81)	F(2.4,863.7)=200.75***
충청도사람(264)	43.41(16.91)	50.83(16.22)	48.41(17.56)	63.97(17.01)	F(2.7,714.7)=96.07***

***p<.001

해 일반인보다 더 호의적이었다. 즉, 서울과 충청 학생들은 따뜻함 평가에 있어 경상도 사람들과 전라도 사람들을 비슷하게 평가하였고, 신뢰성 평가와 감정 온도 평가에 있어서도 서울 학생들과 충청도 학생들은 경상도와 전라도 사람들을 비슷하게 평가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에 있어서도 영호남간에는 상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나타났다. 즉, 따뜻함 평가와 온도 평가에 있어 영호남 학생들은 서로 상대에 대해 충청도 사람들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신뢰성 평가에 있어서는 특히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을 충청 사람보다 더 낮게 평가하였다. 전라도 학생들은 경상도 사람들과 충청도 사람들을 그 신뢰성에 있어 비슷하게 평가하였다.

각 집단에 대한 태도 평가(감정온도 평가)에 있어서 각 특성 평가가 미치는 영향

부록3에 14개 집단 각각에 대한 태도(즉, 감정 온도) 평가에 유능성, 따뜻함, 신뢰성, 감탄, 연민, 질투, 분노 및 경멸의 감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과가 나타나 있다. 이에서 보면 대체로 따뜻함의 평가가 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 신뢰성 평가가 영향을 미쳤으며 감정 평가의 영향은 대체로 미약했으나 감탄의 감정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 연민의 감정의 순이었다. 이 중 신뢰성 평가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서울사람, 이혼녀, 부유층 및 탈북자 등과 같이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세민, 신체장애자 및 외국인 노동자와 같이 지위가 낮고 경쟁적이지 않은 소수 집단 사람들에게 대해서 유능하지는 않지만 따뜻하다고 지각하고 연민을 느끼는 보호적 고정관념을 나타내었고, 반면 부유층이나 남성 및 서울 사람들같이 지위가 높고 경쟁적인 집단들에 대해서는 유능하지만 냉정하다고 지각하고 질투의 감정을 가지는 질투적 고정관념을 보였다. 한편, 지위가 높으면서 경쟁적이지 않은 집단(즉, 인권운동가 집단 등)에 대해서는 따뜻하면서 유능하다고 지각하고 감탄의 감정을 보이는 찬미적 고

정관념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Fiske 등(2002)의 미국인의 집단 고정관념에 대한 분석 결과와 비슷하다. 그러나 이혼녀, 탈북자 등 지위가 낮은 집단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따뜻하고 덜 유능하다고 지각하였지만 그 정도는 그다지 강하지 않았다(즉, 중간 보다 약간 낮은 정도). 또한 이 집단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따뜻함이 유능성보다 높다고 평가하였고 약간의 연민의 감정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후자의 결과는 Fiske 등(2002)이 보고한, 미국인들이 복지기금 수혜자 등과 같은 저지위-고경쟁 집단에 대해 느끼는 경멸적 편견(즉, 대상 집단에 대해 유능하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다고 지각하고, 경멸의 감정을 가지는)의 경우와는 다른 양상이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본 연구에서 포함시킨 집단들 중 사람들이 경멸적 고정관념을 가지는 집단(예컨대, 전과자, 아동 성학대자)이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실상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이혼녀나 탈북자 집단의 (내집단과의) 경쟁 정도를 낮게 평가하여(2.12), 신체장애인, 외국인노동자 혹은 영세민에 대해서와 비슷한 정도로 평가하였다. 둘째, 사회구조의 차이로 인해, 집단 평가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경우처럼 지위가 낮은 소수 집단 중 정부의 복지 혜택을 충분히 받아 다른 집단에 돌아갈 혜택이 짝이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따라서 지위가 낮으면서 경쟁적인 경우는 드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에 비해 집단을 지각할 때 더욱 양극적으로 지각할 가능성이 있다. 즉, 사회의 소수 집단은 대체로 무능하지만 따뜻한 특성을 가진다고 지각하고, 반면 사회의 다수 집단에 대해서는 유능하지만 이기적이고 냉정하다고 지각하는 경향성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가능성 중 어느 해석이 맞을지는 후속 연구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지역 집단들이나 여성 및 중산층 집단에 대해 사람들은 유능성과 따뜻함이 모두 중간 정도로 비슷하게 평가하였고, 남성 집단과 서울 사람들에게 대하여는 이들 전자의 집단들과는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는 것(즉, 더 유능하지만 덜 따뜻함)으로 지각하였다. 이 전자의 집단들은 앞에서 언급한 보다 극단적 평가를 받은 집단들과도 다른 집단들로 평가되어 우리 사회의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들과는 달리, 중간 위치를 점하고 있는 집단들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체로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많은 경우 사람들이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에 대해 가지는 고정관념은 일방향적으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지 않고, 부정적 고정관념과 긍정적 고정관념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은 지위가 높은 다수 집단에 대해서는 유능하지만 따뜻하지 않고, 지위가 낮은 소수 집단에 대해서는 유능하지는 않지만 따뜻하다는 고정관념을 나타내었다. 사람들이 소수 집단에 대해 이렇게 일방적으로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고정관념을 가진다는 것은 일면 다행이라고 간주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낮은 유능성 평가와 그에 따른 고용에서의 차별이나 낮은 사회적 지위와 대접에 대한 정당화로 소수 집단이 더욱 따뜻하다는 고정관념이 강화될 수도 있어 소수 집단들에게는 이러한 사회의 인식이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수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는 이러한 고정관념이 일반인에게서 보다는 학생 응답자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즉, 학생은 일반인이 평가하는 것보다 소수 집단(즉, 신체장애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덜 유능하지만 더 따뜻하다고 평가하였고, 반면 다수 집단(즉, 남성, 서울사람 및 부유층)에 대해서는 더 유능하지만 덜 따뜻하다고 평가하였다. 학생들은 또한 남성, 서울사람, 부유층 등의 다수 집단에 대해 일반인보다 더 낮은 감정 온도를 나타내었다. 이렇게 볼 때, 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에 대해 일반인보다 더 양가감정적(Glick, 2000; Glick & Fiske, 1996, 1997, 2001)인 태도 혹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학생들은 소수 집단에 대해서는 더욱 보호주의적 고정관념을 가지는 반면 다수 집단에 대해서는 더욱 질투적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소수 집단에 대한 이러한 보호주의적 혹은 온정주의적(benevolent) 편견은 일방적으로 적대적인 편견보다는 대상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특성을 지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덜 편견적인 태도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 능력의 측면에서는 대상을 더욱 낮게 평가하는 등, 여전히 편견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혹은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부정적 감정이

나 태도를 은폐하고 정당화시키는 방편으로 일면 더욱 긍정적인 특성을 지각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다. 학생들이 소수 집단에 대해 과연 일반인보다 더욱 양가감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수 집단에 대한 양가감정을 측정하는 개인차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서 보다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 개인들이 그러한 양가감정을 더욱 강하게 가지게 되는 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학생들은 일반인들보다 약자에 대한 정의의식이나 평등지향적 가치관 등이 더욱 강하여 죄의식을 더 강하게 가지지만 한편 어렸을 때부터 학습된 약자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감정이 여전히 남아 있어 이와 같은 양가감정을 가지게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와 소수 집단에 있어서 내집단 평가와 외집단 평가의 차이가 있는지를 9 집단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결과, 가설대로 다수 집단은 외집단이 평가한 경우보다 자신들이 더욱 따뜻하다고 평가하였으며, 한편 소수 집단들은 외집단이 평가했을 때보다 자신들이 더욱 유능하며 또한 더욱 따뜻하다고 평가하였다(신체장애인 제외). 더 구체적으로 보면, 유능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탈북자 집단과 신체장애인 집단에서 내외집단 평가 차이가 가장 컸고(즉, 내집단 평가가 외집단 평가보다 더 높았고), 따뜻함 평가에서는 탈북자 집단, 호남인 및 이혼녀 집단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신뢰성 평가에 있어서의 내외집단 평가의 괴리도 탈북자, 호남인 및 이혼녀의 순서대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집단 평가와 외집단 평가와의 괴리의 강도는 그 집단의 사람들이 체험하는, 자신들에 대한 사회의 왜곡되고 비하적인 고정관념으로 인한 갈등과 소외감 및 심리적 스트레스 및 심리적 폭력 등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진우택, 2000; 채정민, 한성열, 허태균, 김동직, 2002). 이렇게 볼 때 우리 사회에서는 특히 탈북자 집단이 이러한 스트레스를 가장 크게 겪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이 호남인(특히, 따뜻함과 신뢰성의 차원상의 괴리에서), 그리고 여성(특히 유능성과 신뢰성의 차원상의 괴리에서) 및 이혼녀 집단들(유능성과 따뜻함의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 탈북자 집단의 평가 점수가 전반적으로 다른 집단의 평가 점수에 비해 약간 더 높은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자신들의 유능성을 전체 집단 중 7번째

로 높이 평가하였고, 따뜻함, 신뢰성 및 감정 온도 평가에 있어서는 2위로 평가하여, 이들의 내집단에 대한 평가 점수가 외집단 평가 점수보다 높은 것이 단순히 반응 편파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성 집단은 자신의 집단을 평가할 때 외집단이 평가하는 것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내집단 편애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 볼 때 남성들은 남성들의 유능성을 여성의 유능성보다 높게 평가하였는데 반해, 여성들은 여성들의 유능성을 남성들의 유능성보다 낮게 평가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평가는 일반인에 있어서나 학생에 있어서나 동일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들은 비록 남성들이 평가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유능성을 높게 평가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남성들의 유능성을 더욱 높게 평가하여, 유능성에 있어 스스로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서 자신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느 정도 내면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한 사회의 소수 집단의 사람들(즉, 남성에 비교할 때)이 자신의 낮은 지위를 정당화하여 오히려 외집단을 자신의 집단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향성이 흔히 나타난다(Jost & Major, 2001; Major, Gramzow, McCoy, Levin, Schmader & Sidanius, 2002). 물론 이러한 경향성은 소수 집단이 자신의 소수 집단에 대해 동일시하는 정도나 그 사회가 정당하다고 믿는 정도에 있어서의 개인차에 의해서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많은 경우 소수 집단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수 집단의 사람들보다 낮은 봉급을 받거나 낮은 지위를 배정받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우리 사회의 여성들도 일반인이거나 학생이거나 간에 이와 같은 여성·남성의 현재 지위에 대한 정당화를 하고 있음을 본 연구 결과가 보여 준다. 이러한 소수 집단의 지위 정당화는 소수집단의 사회에서의 지위 향상이나 사회체제 변화를 위해서는 소수 집단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개인적·집단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정적 효과를 자아낼 수 있다.

지역 상호간의 평가에 있어 본 연구 결과 나타난 가장 뚜렷한 특징은, 각 지역 사람들이 서울 사람의 인성적 특성(즉, 따뜻함과 신뢰성)에 대해 제일 낮게 평가했다는 점이다. 따뜻함과 신뢰성 및 감정 온도 평가에 있어 나타난 서울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낮은 평가는 실

상 서울 사람 스스로의 평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서울 사람에 대한 최하위의 평가는 호남, 영남, 충청 및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그러나 호남, 영남 및 서울 출신 서울사람들이었음) 대학생들의 지역 태도를 조사하였던 1988년 연구(김혜숙, 1988) 결과와도 차이가 난다. 이 후자의 연구에서는 호남 사람들에 대한 호감도가 서울, 경상 및 충청 사람들 모두에게서 가장 낮았다. 이 후자의 연구에서는 또한 신뢰성 평가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평가가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 경상도 사람이 충청도 사람들과 비슷한 정도로 제일 높은 호감도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볼 때, 1988년의 대학생들의 평가에 비해 현재의 평가에서는 호남 사람들이 보다 더 호의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서울 사람들과 경상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더 낮은 평가를 받았음을 보여 준다. 실상 이러한 결과는 최근의 지역감정 연구(김범준, 2002)에서도 나타난 바 있어 어느 정도 신뢰로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호남 사람들에 대한 따뜻함 평가, 신뢰성 평가 및 감정 온도 평가가 이전보다 더 나아졌음을 보였지만, 신뢰성이나 감정 온도에 있어서의 평가 순위는 호남 사람들이 서울 사람 다음으로 낮은 평가를 받아 이전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경상도 사람들보다 더 낮게 평가되었다. 또한 영호남 사람들의(학생 포함) 상호 평가도 서울 사람에 대한 평가 다음으로 낮아 상호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 준다. 요약하면, 본 연구 결과 나타난 현재 우리 사회의 지역 고정관념은 이전보다는 조금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전의 호남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현재에는 서울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그 대상이 바뀐 것이며, 영호남의 상호 부정적 인식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문제점을 여전히 나타내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 대 지방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집단 고정관념에 대한 분석 틀-유능성과 따뜻함의 차원상의 분석-은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분석 틀을 사용해서 우리 사회의 많은 주요 집단들과 갈등 관계에 있는 집단들을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Fiske 등 (2002)

의 연구 결과와 달리, 집단 지위와 내집단과의 경쟁 정도라는 집단 구조의 요인들이 각각 유능성과 따뜻함의 집단 특성에 대한 지각으로 귀결되는 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 지위와 내집단과의 경쟁정도가 상호 독립적이지 않고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각 구조적 요인이 유능성과 따뜻함 평가 모두와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집단 구조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일 수도 있고 혹은 본 연구에서 충분히 다양한 많은 집단들을 포함시키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탈북자 집단과 이혼녀 집단이 상대적으로 유능성도 낮고 따뜻함도 낮은 집단으로 구분되었던 것은 이들 집단이 내집단과 경쟁이 높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행동 유형에 있어서의 차이나 가치관의 차이로(예컨대,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과 행동 양식의 차이, 자본주의 가치관의 차이 등) 인해 그렇게(즉, 유능성도 낮고 따뜻하지도 않다) 지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집단의 따뜻함에 대한 지각은 내집단과의 경쟁 여부보다는 내집단과의 가치 차이나 행동 양식의 차이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더 많은 수와 다양성의 집단들을 포함시켜 이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방법적 문제점은 특히 지역 상호평가나 내외집단 평가를 비교 검토함에 있어서 각 지역별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일정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또한 연구에 포함된 대상 집단들의 크기가 서로 다르고 큰 집단과 그 하위 집단들도 포함되어 있거나(예컨대, 여성, 이혼녀) 집단 구분이 중복될 수 있는 집단들(예컨대, 남성 여성과 지역 집단)이 모두 포함되어 특히 내외 집단 구분이 정확하게 이루어 지지 못하였을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큰 집단 범주(예컨대, 여성)의 하위 집단들(예컨대, 페미니스트, 가정주부, 할머니, 이혼녀, 미혼모 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유능성과 따뜻함의 두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변화되는 지를 검토하고 특히 여성과 남성의 고정관념의 차이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 고정관념의 두 차원 -유능성과 따뜻함-에서 우리 사회의 여러 주요 집단들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집단 갈등들에 개입되어 있는 많은 중요한 측면들을 검토해 볼 수 있

었다. 즉, 이 집단들에 대한 고정관념의 유형, 내외집단 지각의 괴리 및 지역간 그리고 성 집단간 상호 지각에 대해 보다 포괄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측면들은 우리나라 집단 갈등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중요하며, 이러한 기초 자료를 토대로 탈북자, 신체장애인과 이혼녀 등의 소수 집단의 적응이나 사회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배려와 다수 집단이 소수 집단을 보다 잘 이해하고 협동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범준 (2002). 사회적 범주화가 지역감정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1), 1-18.
- 김진국 (1987). 영호남 대학생의 상호간 차이지각 연구. *사회심리학 연구*, 3(2), 113-148.
- 김혜숙 (1988). 지역간 고정관념과 편견의 실상-세대간 전이가 존재하는가?- *한국심리학회 편.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 pp. 123-170. 서울: 성원사.
- 김혜숙 (1992). 성별 고정관념, 성차이와 양성성. *아주대 사회과학연구소 편, 현대 사회의 여성과 남성*. 서울: 정일문화사.
- 전우택 (2000).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과 심리갈등에 대한 이해. 2000년 한국 심리학회 춘계 심포지움 논문집.
- 조공호 (1982). 지적 평가정보와 사회적 평가정보가 호오 차원인상과 화친차원 인상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 *사회심리학연구*, 1, 78-100.
- 채정민, 한성열, 허태균, 김동직 (2002). 북한 이탈주민용 문화 적응 전략 척도 개발. 2002 한국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동계 학술대회 논문집.
- Brewer, M. B., & Brown, R. J. (1998). Intergroup relations. In D. T. Gilbert, S.T. Fiske & Z. Lin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Vol. 2, pp. 554-594). New York: McGraw-Hill.
- Broverman, I. K., Vogel, S. R., Broverman, D. M., Clarkson, F. E., Rosenkrantz, P. A., & Vogel, S.

- R. (1972). Sex-role stereotypes : A current appraisal. *Journal of Social Issues*, , 59-78.
- Fiske, S. T. (1998). Stereotyp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n D. T. Gilbert, S.T. Fiske & Z. Lin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Vol. 2, pp. 357-414). New York : McGraw-Hill.
- Fiske, S. T., Cuddy, A. J., Glick, P., & Xu, J. (2002). A model of (often mixed) stereotype content : Competence and warmth respectively follow from perceived status and compet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878-902.
- Fiske, S. T., & Taylor, S. E. (1991). *Social cognition*. New york : McGraw-Hill.
- Fukuyama, F. (1995). *Trust :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 Free Press.
- Glick, P., & Fiske, S. (1996). The ambivalent sexism inventory : Differentiating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491-512.
- Glick, P., & Fiske, S. (1997).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 Measuring ambivalent sexism attitudes toward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 119-135.
- Glick, P. (2000). Beyond prejudice as simple antipathy :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across cul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763-775.
- Glick, P., & Fiske, S. T. (2001). An ambivalent alliance :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as complementary justifications for gender inequality. *American Psychologist*, 56, 109-118.
- Hair, J. E. Jr.,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 (1995). *Multivariate data analysis* 4th Ed.) Upper Saddle, NJ : Prentice -Hall.
- Jost, J. T., & Major, B. (2001). *The psychology of legitimacy : Emerging perspectives on ideology, justice and intergroup relations*.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tz, D., & Braly, K. (1933). Racial stereotypes in one hundred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28, 280-290.
- Major, B., Gramzow, R. H., McCoy, S. K., Levin, S., Schmader, T., & Sidanius, J. (2002). Perceiving personal discrimination : The role of group status and legitimizing ide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3), 269-282.
- Rosenberg, S., Nelson, C., & Vivekananthan, P. S. (1968).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the structure of personality impress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 283-294.
- Taylor, S. E. (1998). The social being in social psychology. In D. T. Gilbert, S. T. Fiske & Z. Lin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Vol. 1, pp. 58-98). New York : McGraw-Hill.
- Ward, J. H. (1963). Hierarchical grouping to optimize an objective function.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58, 236-244.

부 록 1

표 1. 각 집단에 대한 지위, 경쟁여부, 신뢰성 및 온도 평가 평균

집 단	평 균(SD)			
	지 위	경 쟁	신뢰성	온 도
영세민	1.81(0.69)	2.10(0.74)	2.96(0.63)	58.90(19.49)
인권운동가	3.10(0.64)	2.24(0.78)	3.58(0.74)	62.13(22.53)
전라도사람	2.82(0.52)	2.47(0.87)	3.00(0.59)	54.46(19.01)
여성	2.96(0.54)	2.47(0.88)	3.07(0.53)	64.79(16.80)
신체장애인	1.96(0.64)	2.02(0.73)	3.18(0.60)	63.77(19.39)
경상도사람	3.12(0.56)	2.56(0.89)	3.11(0.48)	55.48(16.42)
충청도사람	2.94(0.46)	2.51(0.80)	3.07(0.45)	57.88(15.33)
중산층	3.35(0.52)	2.77(0.83)	3.06(0.48)	56.50(15.36)
외국인노동자	1.67(0.60)	2.09(0.77)	2.86(0.61)	54.28(18.84)
남성	3.49(0.59)	3.04(0.98)	3.23(0.52)	53.73(14.99)
서울사람	3.62(0.68)	3.05(0.98)	2.82(0.53)	45.96(17.40)
이혼녀	2.60(0.54)	2.16(0.77)	2.74(0.58)	46.00(17.58)
부유층	4.25(0.76)	3.46(1.02)	2.50(0.69)	36.34(19.75)
탈북자	2.11(0.65)	2.06(0.77)	2.80(0.64)	48.87(18.81)

부 록 2

표 1. 대상 지역과 평가자 지역에 따른 유능성 평가 평균(SD) (일반인)

대상응답자(N)	서울사람	경상도사람	전라도사람	충청도사람	F(df1,df2)
서울사람(174)	3.48(0.59)	3.14(0.45)	3.03(0.49)	3.05(0.41)	F(2.00,346.31)=63.30***
경상도사람(165)	3.28(0.59)	3.16(0.49)	2.95(0.41)	3.02(0.40)	F(2.52,413.14)=25.25***
전라도사람(139)	3.40(0.58)	3.17(0.35)	3.09(0.43)	3.09(0.32)	F(2.28,314.95)=25.71***
충청도사람(109)	3.39(0.58)	3.13(0.48)	2.96(0.53)	3.10(0.40)	F(2.52,272.02)=21.42***

***p<.001

표 2. 대상 지역과 평가자 지역에 따른 따뜻함 평가 평균(SD) (일반인)

대상응답자(N)	서울사람	경상도사람	전라도사람	충청도사람	F(df1,df2)
서울사람(174)	2.90(0.68)	3.02(0.70)	2.98(0.80)	3.16(0.65)	F(2.62,346.31)=63.30***
경상도사람(167)	2.70(0.62)	3.27(0.55)	2.94(0.51)	3.17(0.49)	F(2.25,373.26)=44.79***
전라도사람(138)	2.84(0.60)	3.05(0.45)	3.41(0.62)	3.09(0.44)	F(2.01,275.07)=31.60***
충청도사람(108)	2.62(0.60)	2.98(0.55)	2.80(0.66)	3.40(0.62)	F(2.33,249.76)=45.50***

***p<.001

표 3. 대상 지역과 평가자 지역에 따른 신뢰성 평가 평균(SD) (일반인)

대상응답자(N)	서울사람	경상도사람	전라도사람	충청도사람	F(df1,df2)
서울사람(175)	3.02(0.52)	3.08(0.54)	2.89(0.67)	3.04(0.51)	F(2.38,413.10)= 6.42**
경상도사람(167)	2.79(0.54)	3.28(0.55)	2.86(0.58)	3.07(0.46)	F(2.32,386.41)=38.46***
전라도사람(139)	2.93(0.50)	3.05(0.46)	3.26(0.51)	3.05(0.41)	F(2.28,313.95)=16.53***
충청도사람(109)	2.80(0.46)	3.12(0.54)	2.75(0.65)	3.28(0.61)	F(2.11,227.34)=28.26***

p<.01, *p<.001

표 4. 대상 지역과 평가자 지역에 따른 감정 온도 평가 평균(SD) (일반인)

대상응답자(N)	서울사람	경상도사람	전라도사람	충청도사람	F(df1,df2)
서울사람(177)	53.27(16.62)	55.08(16.88)	51.41(19.10)	57.63(16.48)	F(2.39,420.28)=6.23**
경상도사람(169)	48.31(15.76)	62.33(15.53)	48.35(16.62)	58.67(12.85)	F(2.54,427.06)=49.96***
전라도사람(141)	50.92(17.52)	55.44(16.95)	67.07(16.11)	56.87(16.62)	F(2.54,356.19)=38.52***
충청도사람(110)	47.00(16.29)	54.55(17.12)	47.73(18.46)	64.78(17.78)	F(2.35,255.72)=36.88***

p<.01, *p<.001

표 5. 대상 지역과 평가자 지역에 따른 유능성 평가 평균(SD) (학생)

대상응답자(N)	서울사람	경상도사람	전라도사람	충청도사람	F(df1,df2)
서울사람(163)	3.59(0.45)	3.05(0.39)	2.89(0.41)	2.93(0.31)	F(1.70,275.31)=150.53***
경상도사람(281)	3.58(0.54)	3.10(0.37)	2.91(0.39)	2.97(0.33)	F(2.22,621.57)=179.42***
전라도사람(224)	3.61(0.50)	3.21(0.42)	3.04(0.44)	3.07(0.33)	F(2.36,526.81)=125.62***
충청도사람(152)	3.54(0.60)	3.12(0.43)	3.09(0.43)	3.03(0.45)	F(2.26,340.74)= 53.42***

***p<.001

표 6. 대상 지역과 평가자 지역에 따른 따뜻함 평가 평균(SD) (학생)

대상응답자(N)	서울사람	경상도사람	전라도사람	충청도사람	F(df1,df2)
서울사람(163)	2.67(0.51)	3.01(0.53)	3.06(0.62)	3.08(0.50)	F(2.21,358.47)= 28.90***
경상도사람(280)	2.46(0.60)	3.16(0.44)	2.97(0.59)	3.11(0.50)	F(2.34,653.55)=142.69***
전라도사람(223)	2.46(0.52)	3.01(0.49)	3.59(0.59)	3.15(0.45)	F(2.23,496.37)=229.63***
충청도사람(152)	2.47(0.61)	2.93(0.54)	2.98(0.65)	3.38(0.57)	F(2.46,375.23)= 77.82***

***p<.001

표 7. 대상 지역과 평가자 지역에 따른 신뢰성 평가 평균(SD) (학생)

대상응답자(N)	서울사람	경상도사람	전라도사람	충청도사람	F(df1,df2)
서울사람(163)	2.85(0.46)	2.99(0.44)	2.94(0.51)	2.97(0.45)	F(2.26,367.91)= 4.51**
경상도사람(281)	2.65(0.48)	3.18(0.40)	2.88(0.49)	3.03(0.33)	F(2.39,670.42)=102.08***
전라도사람(222)	2.73(0.49)	3.02(0.40)	3.25(0.46)	3.02(0.33)	F(2.29,505.28)= 77.62***
충청도사람(154)	2.76(0.53)	3.06(0.49)	3.02(0.58)	3.17(0.51)	F(2.65,405.60)= 24.20***

p<.01, *p<.001

표 8. 대상 지역과 평가자 지역에 따른 감정 온도 평가 평균(SD) (학생)

대상응답자(N)	서울사람	경상도사람	전라도사람	충청도사람	F(df1,df2)
서울사람(163)	44.90(14.83)	50.76(15.83)	49.85(17.64)	53.18(14.92)	F(2.50,407.72)=11.534***
경상도사람(281)	39.34(16.71)	59.38(15.43)	48.69(16.70)	55.00(12.86)	F(2.48,693.03)=114.13***
전라도사람(223)	42.69(15.33)	51.57(14.71)	68.68(15.72)	55.96(13.57)	F(2.28,505.31)=187.63***
충청도사람(154)	40.84(16.93)	48.18(15.06)	48.90(16.94)	63.40(16.48)	F(2.71,414.87)= 64.31***

***p<.001

부 록 3

표 1. 14개 집단의 유능성, 따뜻함, 신뢰성, 감탄, 연민, 질투, 분노, 경멸 평가가 감정온도(태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종 속 변 인				
	영세민온도	인권운동가온도	전라도사람온도	여성온도	신체장애인온도
유 능 성	-0.01 ¹	-0.04	-0.01	-0.02	0.02
따 뜻 함	0.34***	0.43***	0.42***	0.32***	0.36***
신뢰성	0.20***	0.17***	0.20***	0.17***	0.23***
감 탄	0.08**	0.17***	0.14***	0.19***	0.11***
연 민	0.16***	0.07***	0.11***	0.06*	0.05*
질 투	0.08*	0.01	-0.01	0.01	0.02
분 노	-0.07	-0.03	-0.09**	-0.04	-0.02
경 멸	-0.08*	-0.10**	-0.05	-0.05	-0.06*
R ²	0.33	0.48	0.50	0.28	0.35

주) 1. 숫자는 β 를 나타냄. 2. * $p < .05$, ** $p < .01$, *** $p < .001$

표 1 계속

독립변인	종 속 변 인			
	경상도사람온도	충청도사람온도	중산층온도	외국인노동자온도
유 능 성	0.01	-0.03	0.01	0.02
따 뜻 함	0.28***	0.27***	0.27***	0.31***
신뢰성	0.26***	0.26***	0.24***	0.26***
감 탄	0.13***	0.15***	0.09***	0.08***
연 민	0.08**	0.04	0.13***	0.07**
질 투	-0.01	0.03	-0.02	0.04*
분 노	-0.05	0.01	0.00	-0.06
경 멸	-0.07	-0.14***	-0.13**	-0.08**
R ²	0.32	0.29	0.29	0.34

주) 1. 숫자는 β 를 나타냄. 2. * $p < .05$, ** $p < .01$, *** $p < .001$

표 1 계속

독립변인	종 속 변 인				
	남성온도	서울사람온도	이혼녀온도	부유층온도	탈북자온도
유 능 성	0.02	0.01	0.01	-0.01	0.03
따 뜻 함	0.28***	0.32***	0.27***	0.31***	0.31***
신뢰성	0.21***	0.31***	0.35***	0.30***	0.33***
감 탄	0.14***	0.07**	0.11***	0.10***	0.06**
연 민	0.02	0.09***	0.02	0.08***	0.09***
질 투	-0.06	-0.07*	0.06*	-0.07**	0.06*
분 노	-0.09**	-0.06	-0.02	-0.05	-0.05
경 멸	0.07	0.00	-0.13***	-0.05	-0.06
R ²	0.23	0.39	0.41	0.43	0.40

주) 1. 숫자는 β 를 나타냄. 2. * $p < .05$, ** $p < .01$, *** $p < .001$

The Contents of the Stereotypes Regarding the Minority and the Majority Groups : Analysis on the Competence and the Warmth Dimension

Hai-Sook Kim **Jae-Hong Ko** **Miyoung Ahn · Sangsu Ahn,**
Dept. of Psychol., Ajou Univ. Dept. of Psychol., Kyungnam Univ. Social Sciences Research Institute, Ajou Univ.

Suni Lee **Incheol Choi**
Dept. of Sociology, Ajou Univ. Dept. of Psychol., Seoul National Univ.

The present survey research investigated the stereotype contents regarding major social groups in Korea on the competence and the warmth dimension. The respondents were total 1530 students and non-students living in four regions as well as the North Korea defectors, the divorced and the disabled. The results demonstrated as expected that people perceived the target group(i.e., majority group) who had high status and were highly competitive toward the ingroup as being highly competent but less warm, while they perceived the target group with low status and who were not competitive toward the ingroup as warm but less competent.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greater differences between the ingroup and the outgroup evaluation(i.e., ingroup > outgroup) on the competence dimension were obtained regarding the North Korea defectors, the disabled, the divorced, and women while the ingroup-outgroup differences in terms of the warmth evaluation were obtained regarding the North Korea defectors, Honam people and the divorced. Students evaluated the majority and the minority groups in a more stereotypic way than non-students did.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Key words : majority groups, minority groups, stereotype content, competence, warmth

원고접수 : 2003년 10월 21일
심사통과 : 2003년 11월 20일